

▣ 11. 마을신문<도봉N>

- 마을을 담는 신문의 분투기
 - 마을신문 해볼라고!
 - 마라톤대회 개최(홍보목적)
 - <도봉N>, 도봉사람들을 담다
 - 도봉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
 - 상가오픈소식 등
 - 회원제(월 5만원)
 - 광고게재
 - <도봉N>은 진화한다. 계속!
 - 마을미디어를 통로 삼아 주민들을 만나자
 - 신문, 영상, 팟캐스트 유기적 연계



12.성북마을방송 와보송

• 마을 방송에 내가 나와서 정말 좋네

-와보송, 만만하게 시작하다

- 함성(함께하는 성북마당)
- 시끌시끌 성북이야기...
- 성북마을방송협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

-신나고 재미있는 와보송

- 격주로 마을 뉴스 제작
- 마을영화, 주민이 배우
- 앵커, 제작, 기술자도 모두 주민

-집단지성이 만든다.

- 아빠들의 수다, 언니들의 호박씨
- 마을영상 빌리진

-와보송은 주민과 함께 전진한다.



▣ 13. 예찬길 마을공동체

- 어쩌다 마주친 골목길에서 예술을 접한다는 것
 - 예찬길(예술을 찬양하는 길)
 - 예찬길 마을학교의 탄생
 - 어쩌다마주친 악기사 대표(김광민)
 - 어쩌다 마주친 콘서트
 - 걷다 보면 숨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곳
 - 손바느질, 비누공방 등 소재
 - 예술축제
 - 외롭지 않아서 좋은 마을공동체
 - 내 삶을 다르게 만든 예찬길



▣ 13. 예찬길 마을공동체

- 어쩌다 마주친 골목길에서 예술을 접한다는 것
 - 예찬길(예술을 찬양하는 길)
 - 예찬길 마을학교의 탄생
 - 어쩌다마주친 악기사 대표(김광민)
 - 어쩌다 마주친 콘서트
 - 걷다 보면 숨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곳
 - 손바느질, 비누공방 등 소재
 - 예술축제
 - 외롭지 않아서 좋은 마을공동체
 - 내 삶을 다르게 만든 예찬길



□ 15. 우리는 305호로 이사왔어요

-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붙인
포스트 잇
- 우리 305호로 이사왔어요.
- 아빠, 엄마, 저와 동생, 강아지
-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~~~
- 그 다음날 수 많은 포스트 잇
 - 우리 집은 몇 호인데 반갑다
 - 우리 집은 강아지 두 마리야..
 - 우리 집은 할머니도 계셔..
 - 우리 집에 놀러와~~~



▣ 16. 삼각산 재미난 마을

- 재미있어서 학교이고 마을이라네!
 - 서울 수유동, 우이동, 인수동.
- 살며 배우며 소통하며
 - 아이들의 교육이 동기...
 - 1999년 공동육아협동조합 '꿈꾸는 어린이집' 설립
 - 삼각산 재미난 학교 설립
 - 마을카페, 마을극단, 마을 목공소, 마을밴드, 마을대학 등
- 마을은 어떻게 하교가 되는가?
 - 학교가 마을이고, 마을이 학교
- 마을카페와 목공소에서 재미난 프로그램을
 - 마을카페 재미난, 재미난 밥상 동남아..., 마을목수 공작단



▣ 17.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

- 교육격차, 꿈 격차를 없애는 마을을 아시나요?
-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 태동하기 시작하다.
- 마을이 바뀌어야 아이들이 꿈꿀 수 있다.
 - 교육이 계기
 - 모든 공동체 업무를 주민이 기획
- 마을 축제를 만들다
 - 와글와글 축제, 꿈나르샤 축제
- 동네 형과 언니가 마을의 교육
 - 더불어 사는 방법 교육



▣ 18. 아빠맘 두부

- 마을에서 정상적으로 살기 위하여
 - 아빠들의 의리 투합,
아빠들의 맨땅에 헤딩
 - 아빠들 마을 두부를
만들다.
 - 직화방식
 - 파주의 장단콩
 - 아빠들, 두벽두벽 길을
가다
 - 1일 소비량만 제조
 - 빵과 두부, 프랑스와 한국



▣ 19. 마을 무지개

-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함께 꾸리는 여성기업
 - 결혼이주 여성들의 마음을 엿보다.
 -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프로그램
 - 음식, 바느질, 노래, 책 읽기 등...
 - 마을기업 마을무지개를 띄우다.
 - 마을기업 공모에 당선
 - 이주 여성들이 텃밭 운영(남편 참가)
 - 마을기업에서 찾은 기쁨과 가치
 - 천천히 오래가자
 - 즐겁게 가자
 - 일이 유익해도 힘들면 하지 말자



▣ 20. 짜장면 배달 대회를 열자

-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은 없다
 - 루저 시대에서 벗어나자
 - 모든 일이 소중하다.
- 주민의 모든 일이 예술



▣ 뭉쳐야 산다...



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